

# 산지문화로서 우리 민족의 삶

김영래

한국교원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과정

## I. 들어가며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민족이 삶터로 삼아온 한반도는 온대지역에 있으면서도 유라시아 대륙 말단부의 해양과 대륙이 교차하는 자연환경의 결절점에 위치함으로써 4계절이 뚜렷한 기후가 나타난다. 동해 지각의 확장에 따른 태백산맥의 융기로 인해 중규모 산지가 많고, 온대 몬순기후의 영향으로 여름에 많은 비가 내린다.

배후 산지에서 공급되는 토사가 만들어 놓은 적당한 규모의 충적지와 풍부한 여름 강수량은 농경문화로 발달할 수 있는 자연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무덥고 습윤한 여름과 한랭하고 건조한 겨울로 대비되는 계절적 특성에 적응하기 위한 마루와 온돌문화는 앞산과 뒷산에서 목재와 땀감을 얻어다 사용하게끔 만들었다.

치수능력의 한계와 풍수사상 등의 영향으로 해안이나 큰 하천변의 넓은 저습지와 같은 열린 공간인 평지보다는 들판과 산이 만나는 산록대나 山地의 작은 분지와 같은 약간은 닫혀있는 공간이 우리 민족의 삶터가 되어왔다. 山地에서 먹거리와 땀감을 얻고 산지에서 공급되는 토사와 물을 통해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조상들에게 산지는 생명줄이자 삶의 안식처였다.

산에 대한 접근도 개별 봉우리 중심의 點적인 공간인 산과 여러 산들의 집합체로써 일정한 체적을 가진 面적인 개념의 山地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의 삶이 숲이 아닌 산의 文化를 이루면서 진행되어 왔으며, 선조들의 삶에서 산과 山地가 가지는 의미와 실체를 파악해 봄으로써 산에 대한 성격을 시론적으로나마 재조명하고자 한다.

## II. 숲의 문화와 산의 문화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헤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온다는 이 말은 우리들의 일상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된다. 나무라는 개별 현상, 사실에만 치우치면 숲이라는 전체를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격언이란 그 지역의 생활환경을 소재로 빗대어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말은 독일로 대표되는 중서부 유럽의 자연환경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중서부 유럽은 남부에 Alps라고 하는 거대한 신기조산대 산지가 우뚝 솟아있으며 그 주위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평원과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지문화권에 해당된다. 구릉과 구릉 사이의 곡지에는 마을들이 들어서고 그 곡지를 따라 도로가 발달하며, 이 곡지에서 구릉 능선 쪽으로 strip-cultivation이라고 불리는 경지가 발달하고 능선부에 나무들이 뻗뻗이 자라고 있는 숲이 발달하고 있다. 이것이 유럽의 구릉대에 발달한 전형적인 long-lot settlement 경관이다. 이들에게 산은 가시권 내에서 들어오지 않으며 구릉에 발달한 숲과 토지 그리고 평원뿐이다. 경관(landscape)이란 용어가 원래 토지(land)와 가시권(shaft; scape)이 합쳐져서 인간의 가시권 내에 들어오는 토지(자연환경)를 뜻하듯이, 중서부 유럽인들의 자연관에 산이나 산지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는 산지의 비중이 높고 태백산맥이 동쪽에 치우쳐 발달해 있지만, 대륙 말단부라는 안정지괴의 특성으로 인해 Alps와 같은 거대한 규모가 아니다. 이들 산지 사이에는 구조선이 교차하거나 화강암이 관입된 부분에 차별침식에 의한 산간 분지나 작은 골짜기들이 발달해 있다. 이런 산지 속의 들판들은 예로부터 인간의 거주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농경지가 펼쳐진 들과 산지 속을 흐르는 냇가가 있으

며 주변에는 땀감과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앞산과 뒷산으로 인식되는 산들이 둘러 있다. 그리고 그런 자연 속에 살아가는 인간(人)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같은 자연경관을 그리지만 중서부 유럽인들은 풍경화(a landscape)로, 동양과 우리 조상들은 산수화(山水畵)로 표현하는 것은 평지문화권에 해당하는 유럽과 산지문화권에 해당하는 한반도의 자연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우리의 속담에 숲보다는 산과 관련된 내용이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산과 우리 민족의 삶이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조금은 엿볼 수 있다.

### III. 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 장소로서의 산, 상징으로서의 산, 전통적인 시각(점의 개념)

동양의 자연관은 일반적으로 친환경적 자연관이라고 불리며, 우리 민족이 예로부터 지켜온 자연숭배 사상, 경천사상 등과 같은 민간신앙은 그에 해당된다. 이런 신앙의 대상 중 山神은 고대인들에게는 수호신이었으며, 한 지역에 있는 큰 산을 진산(鎭山)이라고 하여 숭배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 사상이었다. 국가에서는 산신을 모시는 일이 큰 행사였고, 흉년이나 가뭄이 들면 왕이 직접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 행사가 있었다.

우리나라 고대의 신앙에 天神은 山岳을 통로로 하고 인간에게 왕래함으로써 山岳은 곧 인간에게 연결해 있는 천계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지방의 크고 높은 산은 신앙의 표적으로서 주민들의 숭배의 대상이 되고 이러한 山과 峯을 ‘밝은 뉘’의 山이라고 일컬었다. 이 ‘밝은 뉘’가 변하여 ‘박’도 되고 ‘부루’도 되는데, ‘박’을 한자로 쓴 것이 太白이니 小白이니 하는 白이 된 것이고, ‘부루’로 된 것을 불교경전 속에 있는 음과 비슷한 문자를 가져다 쓴 것이 ‘毘盧’라는 것이다. 즉 옛날 말로 ‘밝’山이라고 하며, ‘부루’峯이라고 하던 것이 지금의 ‘白山’이니 ‘毘盧峯’이니 하는 말의 본래 말로써 그 뜻은 곧 神山 聖岳이라고 하는 것이다.

명산의 산신은 국가의 수호신으로 받들어 숭앙하여 지리산은 中祠의 예로서 봄과 가을에 제사를 올렸다. 고려시대에는 태조 왕건의 어머니인 위숙 왕후를 지리산의 산신으로 奉祀하였으며, 이 제도는 조선 말까지 三朝에 걸쳐 전승되었다.

신라의 五嶽은 「東岳吐含山, 南岳地理山, 西岳鷄籠山, 北岳太伯山, 中岳父岳」라고 하여 토함산, 지리산, 계룡산, 태백산, 父岳(팔공산)이며, 조선의 오악은 北岳의 白頭山, 南岳의 智異山, 東岳의 金剛山, 西岳의 九月山, 中岳의 三角山을 들었다. 이것은 국가의 경계 범위 안에서 주요 명산을 오행에 따라 지정한 것이다.

자장율사와 오대산의 관계, 속리산과 8峯8臺8石門의 관계는 바로 名山과 佛敎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다. 점필재의 「頭流山錄」에는 석가여래의 어머니 마야부인을 산신령으로 모셨다는 불교와 관련된 기록이 있다.

이처럼 고려시대나 조선초기까지는 개별 산이나 봉우리를 중심으로 의미부여를 하였으며, 불교적 특색, 산신사상, 경천사상을 산에 투영시켜 나타내었다. 이들 각 산에 대한 일련의 연속성 개념은 없으며, 각각의 산이 갖고 있는 위치와 특색에 상징성을 부여하였다.

#### 2. 상징과 초기 실증적 공간으로서의 산, 실학사상의 영향(선의 개념)

전통지리사상인 풍수지리의 핵심은 형국론인데, 현대 지형학적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결국 산의 배열이다. 명당의 조건인 좌청룡 우백호 등의 개념도 삶터인 분지를 둘러싼 local scale에서의 산열에 向 개념을 적용시킨 것이다. 즉 산을 알면 전체 지형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본격적으로 한반도 시각에서 주요 산줄기와 작은 산줄기들이 등장하였으나, 산열간의 체계적인 위계성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주요 산줄기들과 중요한 곳은 상대적으로 부각시키고 주변부적 성격을 띠는 것들은 추상화시켜 표현하였다.

산경표와 관련된 백두대간과 분수령에 대한 논란도 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산을 알아야 한다는 인식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농경사회로 특징지워지는 우리 민족의 삶에 있어서 물 문제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였다. 조선초기 이전에 가뭄에 대한 대응방식이 기우제였다면, 조선 중기부터는 경지로 흘러드는 물줄기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게 된다. 이론풍수가 확립되어가고 실학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국토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이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지적 규모에서는 분지를 둘러싼 배후 산지에서 물 공급과 산지 관리가 중요했으며, 지역적, 국가적 규모에서는 주요 산지에서 내려오는 물줄기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보인다.

### 3. 지역으로서의 산지, 삶터로서의 산지, 현대적 시각(면의 개념)

#### 1) 흙산과 돌산

「增補文獻備考」를 보면 설악산은 “높은 봉우리들이 줄지어 솟아 있고 돌 색깔이 모두 눈 같기 때문에 이름지었다”고 다. 俗離山의 법주사 서쪽에 있는 수정봉에는 서쪽을 향해 머리를 쳐들고 있는 천연 바위거북과 관련된 전설이 「地理圖識說」에 전한다.

李陸의 「智異山遊山記」를 보면 “은 산에 느티나무와 전나무가 여러 겹으로 경사지게 옆으로 쌓여있어 전진할래야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다”라고 쓰여 있다. 이중환의 「擇里志」에서는 지리산과 소백산, 오대산에 殺氣가 없다고 하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설악산과 속리산에 관한 이야기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돌산을, 지리산과 오대산은 흙산을 나타낸다. 돌산과 흙산으로 대표되는 화강암산과 편마암산은 과거 지배층이나 백성들에게 공통된 이미지로 다가선다. 악자(岳, 嶽)가 들어가는 산들은 암석이 노출되고 기암절벽이 나타나는 화강암산으로써 주로 수려한 절경을 느끼게 하지만, 그 산에 사람이 들어가 살 만한 곳은 못된다. 금강산과 설악산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肉山이라 하여 장엄함을 느끼게 하는 편마암산은 암괴노출이 거의 없고 일정한 토양층으로 덮여 있고 식생밀도가 높아 화전을 일구거나 피난처로써 많이 사용되었다. 柳夢寅 이 표현한 小骨多肉이라는 것은 지리산과 오대산과 같은 편마암 산지를 뜻한다.

서산대사는 금강산은 수려하나 장엄하지 못하고 지리산은 장엄하나 수려하지 못하고 묘향산은 장엄하고도 수려하다는 셋구를 남겼는데, 이는 돌산인 금강산, 흙산인 지리산, 돌산과 흙산의 성격이 함께 있는 묘향산을 나타낸 것이다.

#### 2) 삶터와 지역으로서의 산지와 면적 개념(산지문화권)

강원도 북부 영서지방에 있는 양구, 홍천, 인제, 원통, 현리는 지형적으로는 독립된 침식 분지를 이루고 있으나, 전통적인 5일장은 공간적으로 산지 내의 떨어져 있는 이 5개 지역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충북 괴산과 보은의 소백산맥 서사면 쪽에는 소규모 분지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곳에 입지한 마을들은 각기 산열들에 의해 차단되고 있으며 왕래가 쉽지 않은 지형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충북의 전통적 양반문화를 이어온 충북 문화권의 중심지로 이야기되고 있다.

위의 두 지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산지란 면의 특성을 가진 개념이다. 소위 태백산맥을 이야기할 때, 주능선 중심이 아니라 영동선이 지나가는 구간의 경우 원주에서 대관령에 이르는 지역을 태백산맥으로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 한반도의 산지지역은 평야지대와 구별되는 산지문화로서의 특색을 갖고 있으면서도 산지 내 지역간 교류가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형적 특색을 갖고 있다. 즉 폐쇄성과 개방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산지라고 하더라도 안정지대의 특색을 보이는 한반도의 산지는 단층이나 구조선의 발달이 많으며, 이를 따라 하곡이 유도되어 하천이 발달함은 물론 교통로의 역할을 하게 만든다. 이처럼 외부와 격리되면서 약간 열려있는 공간은 지역 통합적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게끔 만든다.

### 3) 삶터에서 관리대상으로서의 산지

鄭志成(文岩)이 「文岩集」에서 화전으로 인한 산지의 벌목이 홍수유발과 범람을 일으켜 농경지의 잠식과 손실을 걱정했으며, 영조(英祖) 5년(1729년)에 “옛적부터 산허리 위쪽의 나무를 베어내지 않으면 시냇물이 마르지 않는다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무를 베어 산이 황폐해졌고 따라서 수자원이 고갈되어 지난 날 좋던 논이 나쁜 논으로 되는 사례가 있다”는 기록은 산지 속의 분지 내에서의 들판과 산의 관계를 말한다. 또한 농경지 잠식 문제는 큰 하천이 아니라 중소규모의 지류(溪)와 관련된 것이다. 이런 기록들은 national scale보다는 regional 내지 local scale에서 접근한 것들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서해안과 평지의 발달한 도시에 집중되어 있는 지금의 경우는 산지 관리보다는 물 문제가 더 중요하다. 홍수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농경지 잠식이나 피해보다는 거주지 잠식이 더 중요한 현실이며, 물 부족 문제는 경작지를 적서줄 소규모 하천이 아니라 4대강과 같은 대하천의 물 관리와 관련이 있다. 남한강이나 북한강, 금강과 같이 주요 산지를 흐르는 큰 하천들이 편마암대와 석회암대, 화강암대 산지를 흐르나에 따라 홍수와 물 부족과 같은 물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National scale뿐만 아니라 wide-regional scale에서의 문제이다.

전통적인 접근은 농경지와 산지의 관계로써, 산이나 산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농경지 문제가 좌우되었다. 오늘날은 거주지와 하천의 관계가 더 중요해졌으며, 산지를 흐르는 하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거주지 잠식과 물 부족 문제가 좌우된다. 여기서 산지는 하천관리의 보조적 역할로 전락되어 있다.

## IV. 토 의

대륙 말단부에 위치한 한반도는 산지가 많아도 구조선 교차와 차별침식으로 인해, 도처에 인구부양이 가능한 골짜기와 작은 분지(들판)들이 발달하였다. 북서계절풍의 영향과 전통지리사상 등의 영향으로 열린 평지보다는 조금은 닫혀있는 이런 분지들은 예로부터 삶터로 이용되어 왔다. 산지 내의 분지라고 하더라도 구조선에 의해 유도된 하곡이 교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주변 지역과의 문화적 교류가 가능한 공간이었다.

산지를 삶터로 농경문화를 일구어온 사람들의 삶의 질은 산지의 형태와 배열, 생태적 특성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산이 있어야 하며, 그 산에서 공급되는 토사와 산지를 흐르는 하천에 의해 들판의 비옥도와 홍수/가뭄과 같은 물문제가 좌우된다. 온돌문화로 인한 땀감의 공급은 전적으로 산에서 이루어지며 건축재료의 공급 역시 용재림을 조성한 국가적 차원이 아닌 지역적 규모에서는 배후 산지에서 공급하였다.

삶의 모든 것이 산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에 대한 경외심은 자연스런 것이다. 역사의 초기에는 국가의 4방위 경계를 상징하는 산을 지정하고, 자연경배사상과 맞물리면서 개별 산 중심으로 제천행사가 이루어지는 등 local scale 차원에서 산을 바라보았다. 농경문화의 발달과 전통지리사상의 성장은 보다 지역적 규모에서의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으며, 대동여지도나 산경표의 백두대간 개념처럼 선적 개념으로써 산과 국토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었다.

백성들의 문화와 정서가 배어있는 마당극 ‘변강쇠’전에서는 변강쇠가 용녀와 만나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논하는 대목이 있는데, 서산대사의 표현과 산지를 삶터로 살아온 백성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東 금강 석산이라 나무 없어 살 수 없고, 北 향산(묘향산) 찬 곳이라 눈 쌓여 살 수 없고, 西 구월 좋다 하나 적굴(도적 소굴)이라 살 수 있다. 南 지리 토후(土厚)하여 생리(坐利)가 좋다 하니 그리로 살러 가세.”